



A MEMBER OF FITCH GLOBAL STUDIO

<3rd Peclers Future insight 2009>
 글로벌(Future insight for 2011) + 로컬(Seoul-nesque)

'Future Metropolises'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스팟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글: 김세은 (트렌드 리서처)
 자료제공: 페클레 한국 공식 지사 LISOPHE



사진1> DDP 홍보관 내부 전경

페클레 한국공식 지사에서 연 1회 소개하는 미래산업사회문화 예측 트렌드(Trend forecasting) 세미나 제 3회 'Future insight'는 서울 디자인 재단의 협조와 함께 2009년 동대문 디자인 파크 (DDP) 홍보관에서 6월 19일 개최 되었다. 특히, 이번 미래산업 사회문화 예측은 전세계적인 로컬 문화경제 확장에 의한 산업 전반 전문가들의 로컬 예측 트렌드 구축에 대한 관심과 요청에 의해 특별히 분석 및 예측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드림소사이어티 스토리텔링을 갖는 서울의 환경을 재주목하고 서울리엔(seoulien)을 중심으로 생동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예측, 2011년 Peclers가 소개하는 글로벌 예측 동향을 통해 서울-네스크(seoul-nesque)를 정립하는 의도 하에 진행 되었다.



사진2,3> 세미나 전경

< Peclers Future insight 2009 >

Peclers future insight는 연 1회 진행되며, 페클레 한국 공식 지사의 주요 클라이언트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타 세미나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참가 업체 분야는 패션, 코스메틱, 건축, 인테리어, 화학, 도료, 가전, 모바일, IT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 및 마케팅 부서에서 매년 모이고 있다. Future insight는 이순영 페클레 한국 공식 지사 대표의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 됐다.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향을 한번에 볼 수 있었던 페클레 한국 공식 지사에서 제작한 오디오 비주얼은 본드 (bond)의 '비바(ViVA)' 음악을 직접 선정하고 삽입, 편집하여 더욱 그 의미를 부가 시켰다. 페클레(Peclers)에서 제공 되는 오디오 비주얼은 트렌드의 꽃이라 불리며, 노하우로 완성되는 내용으로 모든 클라이언트에 매 해마다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4> 갠블러크루 신규상, 박지훈 (왼쪽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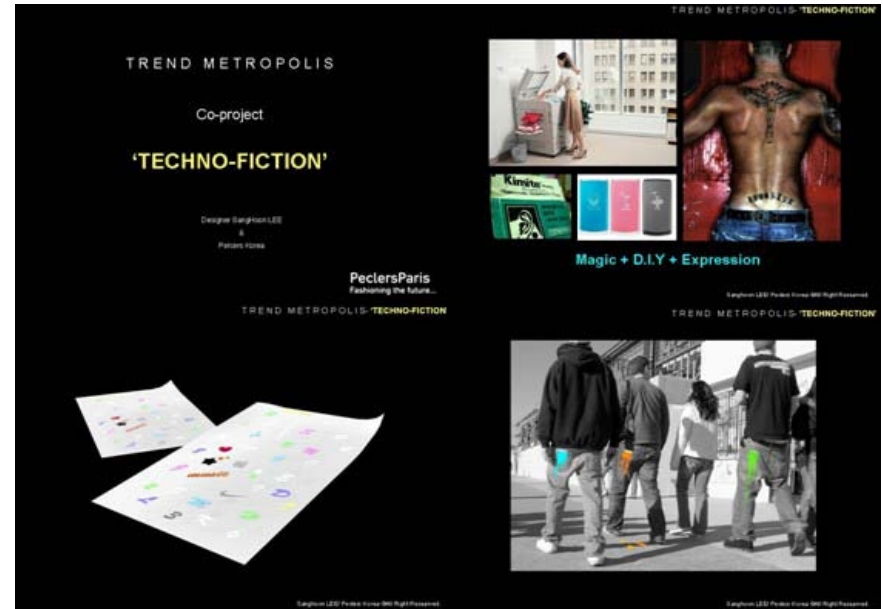


사진5> 이상훈 강연 내용 중



사진6> 피싱트리 강연 내용 중

다양한 게스트 참여

특히, 이번 Future insight에서는 특별한 게스트의 참석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 되었다.

스트리트에서 영감을 찾는 에스프리(esprit)와 스타일, 현 동향 포커스하는 비 보이(B-Boy)인 갠블러 팀이 이야기 하는 힙합에 대한 스토리, 국내에서의 현황과 연이어 페클레 한국 지사 팀의 로컬 분석자료 "Tuning my citylife" 자료를 함께 볼 수 있었다.

또한, 2020년에는 어떠한 새로운 디자인이 도래 할 것 인가, 페클레 한국 지사와 1달여 정도의 단기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디자이너 이상훈의 발표 내용과 국내 최초로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피싱트리의 증강현실로 보여지는 신 기술의 소개와 페클레 한국 지사 팀의 'Future Identification'등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



사진8> Peclers 이노베이션 정보지 Futur(s)9

사진7> Peclers 2011년 예측 테마

Peclers 2011년 CMI (Colors, Material, Influence) , Futur(s)9' 프리뷰(preview)

그 중 가장 주목된 내용은 'Peclers 시즌 포케스팅 2011년 세미나 CMI (Colors, Material, Influence) ' 와 페클레 파리(Peclers Paris)에서 제작 된 'Futur(s)9' 프리뷰(preview) 영상 이었다. 시즌세미나의 경우 주로 CMI로 불리며,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필요한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로 이미 2005년 한국 지사가 생긴 이래로 페클레 한국 공식지사 이순영 대표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매년 멤버쉽 클라이언트에게만 공개로 진행 되는 세미나로 2년 앞선 예측 정보로서의 국내 많은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Peclers Paris에서 제작된 퓨처(Futur(s)9)의 경우는 장기적인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자료로 이날 특별히 국내 최초로 Preview 영상이 공개 되어 모든 이들의 관심이 주목 됐다.



사진9> Peclers 우마미 랩 전경
여러가지 맛의 식재료와 시럽등의 믹스로 우마미의 맛을 느껴볼 수 있다.

우마미 랩 (umami lab)

이날 다양함과 고급정보의 공개로 지적인 즐거움을 선사한 세미나와 강연 내용만큼이나 즐거움을 선사해준 요소가 있었다. 브레이크 타임에 마련된 우마미 랩 (umami lab)은 페클레 한국 공식지사에서 모두 기획한 부분으로 미각과 후각에 대한 요소를 자극 시킴으로써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일본에서 과학자들이 찾은 맛 '우마미'(umami: 감칠맛)으로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의 혀가 감지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맛이 있다. 말로 형언 할 수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만져서 알 수 없는 것...



사진10.11> Peclers 우마미 랩

복합적으로 양상으로 예측되는 미래 감성이 추구하는 디자인과 감성의 이야기로 각종 식 재료들을 모아 마치 실험실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여 스스로가 원하는 재료를 모아 믹스 하여 맛을 볼 수 있는 컨셉으로 진행 되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즐거워 하는 분위기 속에 우마미 맛보기는 성황리에 끝났다.

고급 예측 정보와 다양한 문화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 브레이크 타임 속 맛으로 느끼는 실험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오감을 만족 시켜주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며, 트렌드 업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트렌디 함과 콘텐츠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는 세미나로 다음해 2010년은 또 다른 모습으로 진행 될 Future insight를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